

제36회 과학의 날 기념식 연설

존경하는 과학기술인 여러분,

오늘 제36회 '과학의 날' 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서 헌신하고 계신 과학기술인 모두에게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올해 처음으로 제정된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상' 과 훈·포장을 받으신 수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과학기술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과학기술은 산업구조 자체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어제 융성했던 산업이 퇴조하고 시시각각 새로운 산업이 출현하고 있습니다. 첨단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국제 경쟁도 치열합니다. 선진국들은 점점 더 기술격차를 벌리기 위해 애쓰고 있고, 중국을 비롯한 후발국은 무서운 속도로 우리를 추격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전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분명합니다. 바로 과학기술의 혁신을 이루는 것입니다. 앞선 기술로 첨단제품을 만들어 해외시장을 넓혀 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기술력과 과학기술 인력을 보고 외국인들이 투자를 결정

하도록 해야 합니다. 나아가 신산업을 창출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먹고 살거리를 준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난날 우리는 모방과 학습으로 선진국을 뒤쫓아 왔습니다. 이제는 독자적인 기술개발로 이들을 앞질러야 합니다. 그래야 21세기 지식기반 시대에 당당하게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제 임기 동안 '과학기술중심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제2의 과학기술입국'을 이루어낼 것입니다. 올해 2003년을 제2의 과학기술입국의 원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과학기술입국은 우수한 인재를 키우는 데서 출발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장래의 희망으로 과학자를 손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유치원 시절부터 과학과 수학에 대한 소양을 가질 수 있도록 과학교육을 개혁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론교육이 아닌 실험과 실습 위주의 교육을 정착시킬 것입니다. 실력 있는 과학기술자가 신명나게 연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해외 현지연구를 최대한 지원하여 마음껏 연구하게 하고, 연구성과가 과학기술인의 복지로 연결되는 체제를 만들겠습니다.

과학기술 투자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중심으로 신산업을 창출할 핵심기술을 도출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효율적인 지원책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기업과 대학, 연구소간의 연계체제도 더욱 내실 있게 갖추어 가겠습니다.

기술의 기반은 기초과학입니다. 기초과학이 튼튼할 때 원천기술·기반기술과 산업기술이 발전할 수 있습니다. 산·학·연이 함께 기초과학과 원천·기반기술, 산업기술을 삼위일체로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대학 내 '산학협력센터'를 확충하고, 연구현장과 시장이 가까워지도록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연구개발 성과가 기업활동을 통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국가발전과 국민 복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의 산업화'를 강력히 추진할 것입니다.

중앙에 집중되어 있는 과학기술의 저변을 지방으로 넓혀 나가는 노력도 필요

합니다. 지방의 과학기술을 육성해서 지역 균형발전을 이루겠습니다. 이곳 대덕 연구단지를 포함해서 지역 특색에 맞는 연구개발 거점을 육성하겠습니다. 지방 특화산업 발전을 위한 예산지원을 강화하고, 지방과학기술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겠습니다. 남북 과학기술 협력에도 힘쓰겠습니다. 동북아 변영을 주도하는 통일 과학한국의 시대를 앞당기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동북아의 'R&D 허브'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과학기술의 합리성과 창의성이 꽃피는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21세기 지식기반사회의 정치는 다양한 가치를 담아낼 수 있는 전자민주주의와 함께 변영할 수 있습니다. 행정 역시 '전자정부'의 구축에 의해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 인재의 등용이 필요합니다. 참여정부는 이공계 출신의 공직 진출을 획기적으로 늘려 나갈 것입니다. 과학기술의 힘으로 건전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합리적이고 창의적인 과학정신이 국정전반에 뿌리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의 과학기술인 여러분,

'제2의 과학기술입국'을 이루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인 여러분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과학기술에 2등은 없습니다. 우리만 할 수 있는 1등 분야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과학기술인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이 일류가 되어야 우리나라가 일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여러분에게 달려 있다는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미래사회를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과학기술 입국은 정부나 과학기술인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 여러분이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과학을 생활화해야 합니다. 과학

기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야말로 우리의 과학기술 수준을 높이는 자양분인 것입니다.

거듭 강조드리지만 과학기술에 우리의 국운이 달려 있습니다. '제2의 과학기술입국'은 결코 단순한 구호가 아닙니다. 생존과 번영의 필수조건입니다. 우리가 함께 노력하면 과학기술 5대강국, 세계 10위권의 경제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손잡고 '제2의 과학기술입국'을 이룹시다. 그래서 우리 후손들에게 번영된 미래를 물려줍시다.

감사합니다.